글_ 기획조정부 지식정보팀 **박윤진**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독서에세이

추천도서_ 밑줄 긋는 여자(성수선 저)

내가 이 책을 선택한 동기

취미가 뭐냐는 물음에 '독서'라는 상투적인, 거짓말에 가까운 대답에 대한 반성과 독서광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읽기 습관을 엿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골랐다. 특히, 지은이(성수선)가 여느 직장인처럼 자기계발서에 집착하는 책읽기가 아닌 그냥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책에서 특히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과 이유

이 책은 독서일기에 가깝다. 자신이 읽은 책들이 자신의 일상(샐러리맨의 경쟁생활, 잦은 해외출장, 결혼적령기의 분주함)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지나쳤던 소소한 것들이 주는 소중한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를 적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감명보다는 눈여겨 읽었던 내용은 "특정영역에서 똑똑하지만 무식한 사람들, 전문지식은 박사급이지만 교육은 없는 사람들"에게 소설 읽기를 권하는 대목이다. 솔직히 나도 소설을 읽는 것에 게으르고 읽은 지도 꽤 되었다. 꾸며낸 이야기를 읽어 뭐하겠냐는 나름(?) 실용적 사고의 산물이다. 읽기 습관, 요령의 문제인지 소설 내용이 오래 남지도 않는다. 이 책은 소설에 대한 무지는 감성이 고갈된 '감정적 불구'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설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과 상황을 보다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설 읽기의 경험치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이유

우리보다 바쁜 직장인이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통해 일상의 여유와 건강한 생활자로서의 용기를 갖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독자인 우리도 충분히 작가처럼 독서의 유익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한다.

최근 글쓰기와 글 쓰는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좋은 글쓰기는 읽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명한 경영학자로만 알고 있던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두 권의 소설을 발표하고 대학에서 동양미술강사로 일본회화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 자신도 "나는 적어도 경영학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기본은 문필가다(피터 드러커의 '나의 이력서'에서)." 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인용한 "우리는 글을 안 쓰면 리더가 될 수도 없고, 자기 분야에서 돋보일 수도 없다(유병룡의 '딜리셔스 샌드위치'에서)."라는 말처럼 글쓰기는 취미나 여가의 영역이 아닌 생존의 영역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책 읽기, 글쓰기의 유익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인상 깊었던 책의 구절

삶은 공중에 다섯 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과 같습니다. 다섯 개의 공에 일, 가족, 건강, 친구, 영혼(자기 자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공중에 돌려보십시오. 당신은 곧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떨어뜨려도 바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른 네 개의 공은 모두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예전처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다섯 개 공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더글러스 태프트 코카콜라 회장의 2000년 신년사).

이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훈련의 부족이다. 조금만 더 하면 돼! 너무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포기하지는 말자. 난 목표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허망할까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겠다. 밀려오는 잡생각들을 거부하고 온전히 이 순간을 즐겨야겠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지금 여기! NFRI